“웜업풀 붙어 있는 남부대 수구경기장 시설 가장 만족”

와킨 푸욜 국제수영연맹 시설위원장

“개막 전까지 공사 마무리 안돼 걱정
“남부대 수구경기장 유지비용 많아 폐막후 철거 아쉽지만 합리적 결정”

와킨 푸욜(Joaquin PUJOL) 국제수영연맹 시설위원장은 16일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가진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개막 전까지 이런저런 걱정은 많았지만 지금은 경기장 등 모든 시설이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단=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와킨 푸욜(Joaquin PUJOL) 국제수영연맹(FINA) 시설위원장은 16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결과적으로 보자면, 나 뿐만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온 선수 등 수영 관계자들이 광주 경기장 시설에 대해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푸욜 위원장은 스페인 수구 국가대표 출신으로 자국 수영연맹회장을 지낸 후 지난 2009년부터 국제수영연맹(FINA) 시설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회 경기장이 FINA규격에 맞는지 확인하고, 최종 승인을 내리는 것도 그가 위원장으로 있는 시설위원회 업무다.

5개 경기장 가운데선 남부대 수구경기장이 가장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푸욜 위원장은 “수구경기장의 경우 이전 대회에선 웜업풀과 경기장이 광주처럼 바로 옆에 붙어 있지 않았다. 선수와 코치진 입장에서 보면 광주에선 웜업풀에서 몸을 풀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한 채로 바로 옆 경기장에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며 “선수들은 대회 전까지 엄청난 노력을 한다. 웜업 풀에서 연습을 하는 여러 국가 선수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확실히 시설면에서 만족스럽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회는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과 수구경기장, 조선대 하이다이빙경기장, 염주체육관 아티스틱수영경기장, 여수엑스포공원 오픈워터수영경기장 등 모두 5개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그는 다만 대회 개막 1주일 전 만해도 이번 대회가 제대로 치러질 지 걱정이 컸다고 돌아봤다. 개막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기장 시설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애를 태웠다는 것이다.

푸욜 위원장은 “광주시, 대회조직위도 개막 전까지 제대로 시설이 갖춰질까 걱정했겠지만 저희도 굉장히 많이 걱정했다”며 한숨을 짓고선 “솔직히 말하자면, 세계수영대회마다 전 세계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소리내 웃었다. 과거 다른 대회 때 개회식을 한 달 남겨두고 유럽 소재 개최지를 갔는데 시설 공사가 예상보다 너무 늦어져 동석했던 국제수영연맹 회장 입에서 “맙소사, 우린 이번 대회를 치르지 못할거야. 이번엔 정말 큰일이 난 거야”라는 탄식이 흘러나왔다고 소개하고선 “그래도 대회는 무사히 마쳤다”고 웃으며 소개했다.

다만 푸욜 위원장은 조선대 하이다이빙 경기장과 관련해 “긴급 보수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선수 안전을 보다 세심하게 챙기기 위해 높이 27m에 설치된 하이다이빙 플랫폼과 수조 주변을 조금 손보고 있다는 것이다.

푸욜 위원장은 대회 폐막 후 철거되는 경기장 등 시설물에 대해 “아쉽지만 합리적인 결정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은 증축해서 합리적으로 잘 지었다. 수구경기장은 남부대 축구장에 만들었고, 조선대 하이다이빙 경기장도 마찬가지”라면서도 “(경기장과 관람석 등 시설을 국제수영연맹 규격으로 맞추다 보니) 유지관리비용 측면에서 적잖은 비용이 발생한다. 아쉽지만 철거하기로 한 결정이 합리적인 것 같다”고 했다.

/특별취재단=김형호 기자 khh@

김영남·우하람 한국 다이빙 가능성 엿보다

15일 광주 광산구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다이빙 남자 10m 싱크로나이즈드 플랫폼 결선 경기에서 대한민국의 우하람(오른쪽)과 김영남이 연기를 마친뒤 퇴장하고 있다. /광주세계수영대회조직위 제공

남자 10m 싱크로 6위로 마감 함께했던 4번의 대회 최고 성적

김영남(23)·우하람(21·이상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아쉬움과 고마움 속에 4번째 싱크로 무대를 마무리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광주시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 10m 싱크로나이즈드 플랫폼 결승에서 6차 시기 합계 401.67점으로 12개 팀 중 6위에 올랐다.

기대에는 못 미친 성적이었지만, 2013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회 때부터 호흡을 맞춘 이들은 4대회 연속 결승 진출의 위업을 이뤘다. 또 자신들의 종전 최고 성적(7위)도 경신했다. 둘은 지난 13일 남자 3m 싱크로 스프링보드에 이어 이날 경기까지 소화하면서 함께하는 일정을 끝냈다.

두 사람은 ‘아쉬움’을 먼저 이야기했다. 우하람은 “우리나라에서 대회가 열리다 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며 “영남이 형하고 싱크로 대회를 마쳤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얻은 것도 적잖다. 내년 올림픽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올림픽을 목표로 달려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올해는 작년 12월부터 대회 준비했는데 평소보다 일찍 준비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했고 아쉬운 부분도 많다”며 “하지만 최선을 다했으니까 수고했다, 감사했다 말해주고 싶다”고 함께한 ‘형’ 김영남에게 감사했다.

김영남은 ‘동생’ 우하람에게 ‘미안함’을 이야기했다. 메달을 노렸던 3m 스프링보드 4차 시기에서 자신의 큰 실수가 나온 뒤 순위가 하락, 10위로 경기를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미안함에 펑펑 눈물을 쏟았다는 김영남이 “하람이한테 미안했다”고 하자 동생은 바로 “싱크로 자체가 둘이서 하는 것이니까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한 사람이 실수해도 같이 한 것이다. 전혀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며 형을 위로했다. 김영남은 “하람이가 괜찮다고 보듬어주고 그런 모습들이 고마웠고 아쉬운 것은 있었지만 같이 잘 마무리해줘서 고맙다. 남은 개인전에서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고 우하람의 선전을 기원했다.

4번의 대회를 거치며 두 사람은 실패와 실수 속에 많이 성장했다. 이번 아쉬움을 발판 삼아 우하람은 더 큰 무대로 전진할 각오다. 우하람은 10m 플랫폼과 3m 스프링보드에서 올림픽 본선 티켓이 걸린 결승 진출을 노린다.

우하람은 “첫 대회에서는 상위권 선수들과 많은 격차가 있었다. 종목 난이도에서부터 많은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난이도와 실력이 훨씬 성장했다”며 “격차가 70~80% 줄었다고 생각하니까 조금만 하면 대등해질 것 같다. 올림픽 티켓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신 있게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별취재단=김여울 기자 wool@

1등 보다 더 눈길 끈 우크라이나 다이빙팀

17살·13살 어린 선수들 11위 기록

평균 나이 15세의 ‘미래 스타’들이 선수들과 취재진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 15일 다이빙 남자 10m 싱크로나이즈드 플랫폼 결승이 끝난 뒤 공동취재구역에서 가장 화제를 모은 이들은 압도적인 실력으로 우승을 한 중국팀이 아닌 11위의 우크라이나팀이었다.

앳된 얼굴의 우크라이나 선수들은 경기가 끝난 뒤 얼떨떨한 표정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세르빈 올레흐와 세려가 오레샤 두 사람은 각각 2001년 8월 11일과 2005년 12월 25일에 태어났다. 만으로 치면 17살, 13살의 어린 선수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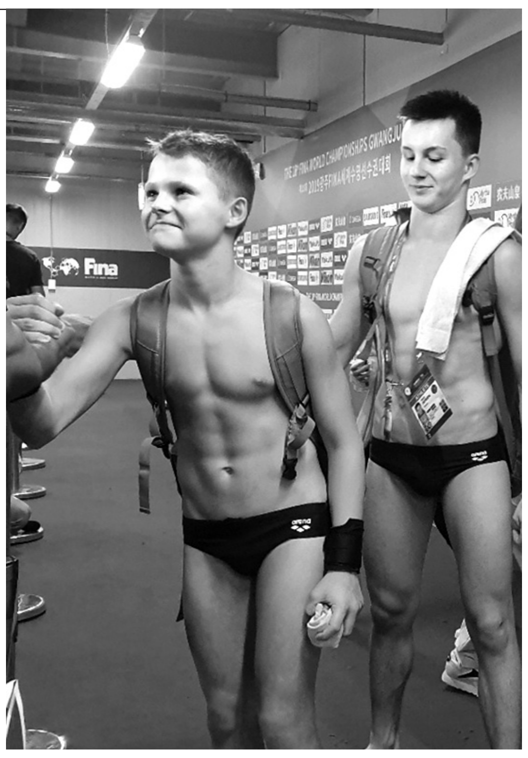
나이도 체격도 형들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지만 씩씩하게 5차시기를 뛴 이들은 339.21점을 합작하며 전체 11위에 올랐다.

나이는 어리지만 다이빙 경력은 각각 11년과 8년에 이른다. 두 사람 모두 다이빙 선수로 활약을 했던 어머니의 대를 이어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다이빙 2세’다. 두 사람은 “인천에서 1주일 정도 머물면서 훈련을 했었다”며 “처음 뛰는 세계 선수권대회였다. 긴장은 됐지만 함께 이렇게 대회를 치러서 행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참가 선수들과 관계자들도 이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누는 등 ‘미래의 스타’에게 관심을 보이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15살이었던 2013년 17살의 김영남과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회를 뛰었던 우하람은 “저희가 했을 때보다 더 어린 선수들이다. 잘한다고 생각했다”며 “우리가 치고 올라간 만큼 밑에서 어린 선수들이 치고 올라오니까 더 분발해야겠다”고 언급했다.

/특별취재단=글·사진 김여울 기자 wool@


세려가 오레샤(왼쪽)와 세르빈 올레흐.

풍암동, 동부 센트레빌, 근린상가, 매매/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아파트정문 앞
상가1층 101, 102, 109, 110호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 현재, 대형 할인마트 입점중
(보 8천만원에 월300만원)
임대기간 만료후 월세 100만원 인상가능
■ 매매 – 9억원
임대 – 보5천만원에 월세 400만원
문의. 010-6834-7400